

## 메시지 3

### 새로운 부흥을 위한 금등잔대의 내재적인 의미와 주관적인 체험과 유기적인 보수

성경: 출 25:31-40, 속 4:1-14, 계 1:10-13, 20, 2:1, 7

- I.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따라 가장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목양을 통해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성과 어린양의 아내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한다 — 빌 3:8, 10, 엡 3:8-11, 계 21:2, 9-10.
- II. 우리는 금등잔대의 내재적인 의미(신성한 계시의 최고봉)를 이해하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금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묘사해 준다 — 엡 1:17, 속 4:1-6, 계 1:2, 9-12.
  - A.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1. 순금의 실질은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한다 — 출 25:31.
    2. 등잔대의 형태는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이신 아들 하나님을 상징한다 — 고후 4:4, 골 1:15, 2:9.
    3. 등잔대는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영 하나님을 상징한다 — 출 25:37, 계 4:5.
  - B. 금등잔대들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자 그 영의 복사판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한다.
    1.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등잔대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출 25:31-40.
    2.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등잔대는 그리스도의 실재이신, 일곱 배로 강화되신 생명 주시는 영을 상징한다 — 속 4:2, 6, 10, 계 5:6.
    3.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등잔대들은 이러한 영-그리스도의 복사판이자 재생산이다 — 계 1:11-12, 20.
- III. 우리는 금등잔대의 세부적인 방면들(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표현인 등잔대의 재생산이 될 수 있다.
  - A.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썩지 않으며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다 — 출 25:31.
    1. 우리는 더 많은 금, 곧 신성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벧후 1:4, 계 3:18, 속 4:12-14, 마 25:8-9.
    2.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의 혼합은 어둠을 가져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신성한 본성을 통해 순수하게 될 때 우리는 빛을 갖는다 — 비교 신 22: 9.

- B. 등잔대는 쳐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고난을 상징한다 — 출 25:31.
1. 맞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 벧전 4:1, 빌 3:10, 골 1:24, 행 16:6-7.
  2.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실체가 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맞아야 한다. 즉 십자가를 통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함께 섞여야 한다(고전 12:24). 이것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증거를 위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내기 위한 것이다.
- C. 등잔대에 치수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께서 비추시는 빛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 요 3:34, 비교 요 7:18, 고전 2:13.
- D. 안정감을 주는 등잔대의 밑받침과 힘을 받는 등잔대의 대는 주 예수님께서 항상 안정되고 강하셨다는 것을 상징한다 — 마 8:24, 비교 고후 1:18, 계 1:9.
- E. 등잔대에 있는 잔의 모양이 꽃받침과 꽃잎이 있는 아몬드꽃 모양이라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부활 안에서 자라고 봉오리를 맺고 꽃피우는, 살아 있는 금나무이시라는 것을 상징한다 — 출 25:31.
1. 아몬드꽃모양의 잔은 부활 생명이 꽃피운 것을 상징한다 — 민 17:8, 렘 1:11-12.
    - a. 부활생명의 꽃피움은 비추는 빛,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 그 영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이다 — 요 1:14, 갈 5:22, 엡 5:9.
    - b.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어 내고자 한다면,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 있지 말고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한다 — 빌 3:10, 아 2:8-9, 14, 비교 시 73:16-17.
    - c.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의해, 우리와 함께 자라시고, 가지를 뺏으시며, 봉오리를 맺으시고, 꽃을 피우심으로써 빛을 비추신다 — 골 2:19.
    - d.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빛이 있을 수 있는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자라실 수 있는 길을 어느 정도까지 얻으시는지에 달려 있다.
  2.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부활 안에 있고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생명과 그 영과 비추는 빛을 가진 이 놀라운 금나무의 일부이다.
- F. 검게 탄 심지를 잘라 내기 위한 순금 부집게와 불뿔 그릇은 부활 생명의 빛 비춤이 밝아지고 순수하게 되도록, 낡고 그을린 타고난 생명을 신성한 본성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상징한다 — 출 25:38.
- G. 등잔대와 그 모든 집기를 순금 한 달란트(약 45킬로그램)로 만들었다는 것은 부활 안에서 신성한 빛을 비추는 신성한 등잔대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무게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출 25:39, 요 7:45-46, 18:37-38, 비교 딤후 2:2, 딤후 2:7.
- H. 등잔대의 일곱 등잔은 하나님의 일곱 영인데, 하나님의 일곱 영은 여호와의 일곱 눈이시고(속 4:10), 구속하시는 어린양의 일곱 눈이시며(계 5:6), 건축을 위한 돌의 일곱 눈으로서(속 3:9),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을 위한 분이다.
1. “그 영께서 안 계시면 교회가 없고, 그 영께서 계실수록 교회가 더 많다.”(교회 — 그 영의 복사판, 19쪽) — 속 4:6.

2. 어린양의 일곱 눈은 법리적인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입하고, 돌의 일곱 눈은 유기적인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입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 서의 하나님의 경륜적인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적인 움직임은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 수행되며 하나님의 건축물을 목표로 한다 — 요 1:29, 행 4:11-12, 롬 5:10, 고전 3:12.
3. 주님의 일곱 눈은 불꽃과 같이 지켜보고, 주시하고, 찾고, 빛 비춤으로써 심판하고, 주입하기 위한 것이다 — 계 1:14, 5:6, 단 10:6.
4.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등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것이다 — 잠 20:27, 계 4:5, 고전 6:17.
  - a. 우리가 변화되려면, 반드시 기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열고, 일곱 등불을 가진 주님의 등이 우리 혼의 모든 방들을 살피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럴 때 주님의 등은 우리의 내적 부분들을 비추고 밝게 하여 우리의 내적 부분들에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 고전 2:11상, 엡 6:18.
  - b. 가장 큰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께 완전히 열린 사람이다.
5. 등잔대에 묘사된 삼일 하나님의 세부적인 방면들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우리는 등잔대의 재생산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등잔대는 주님께서 온 땅을 소유하실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IV.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금등잔대를 유기적으로 보수하는 것인데, 이 사역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함으로써, 그분의 유기적인 목양을 통해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 계 1:13, 2:1, 7, 요 10:11, 14, 뵤전 2:25, 5:4, 히 13:20.

- A.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의 표시이다.
  1. 그리스도는 허리에 띠를 띠심으로써, 교회들을 산출하는 신성한 일을 위해 강화되었지만(출 28:4, 단 10:5), 이제는 가슴에 띠를 띠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산출하신 교회들을 보살피신다.
  2.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가슴은 그리스도의 금에 속한 힘이 그분의 사랑에 의해, 그분의 사랑과 함께 발휘되고 유발되어 교회들을 보양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 B.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심으로 소중히 보살피신다 — 계 1:13상.
  1.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손질하심으로 적합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소중히 보살피시어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하신다 — 출 30:7, 비교 시 42:5, 11.
    - a. 주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우리 존재를 소중히 보살핌으로써,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치료와 씻음과 격려를 준다.
    - b.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의 소중히 보살피는 분위기를 누리면서, 보

양하는 생명 공급을 받을 수 있다 — 엡 5:29, 비교 딤전 4:6, 엡 4:11.

2.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들의 심지를 정돈하시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잘라 내신다 — 출 25:38.

a. 심지의 검게 탄 부분, 곧 불똥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옛 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잘라 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상징한다.

b. 그리스도는 교회들 사이의 모든 차이점들(범죄와 결함과 실패와 결점들)을 잘라 내 버리심으로, 교회들을 본질과 외양과 표현에서 똑같이 되게 하신다 — 비교 고전 1:10, 고후 12:18, 빌 2:2.

C.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가슴에 있는 금띠로 상징된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교회들을 보양하신다 — 계 1:13하.

1.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총명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심으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하신다.

2. 거니시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각 교회의 상태를 알게 되시며, 말씀하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등잔대들을 정돈하시고, 신선한 기름 곧 그 영의 공급으로 등잔대들을 채우신다 — 계 2:1, 7.

3. 그분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한다.

**The Golden Lampstand  
Portrayed in Exodus 25:31-40**  
*(Life-study of Exodus, p. 1082)*

